

국무총리실 불자회 창립

회원 24명...전총련서 회장

국무총리실 불자회(이하 총불회)가 7일 창립됐다.

전총련 서 등 국무총리실 불자들이 한 달간 다른 임직원 200여 명에게 메일을 보내 불자회 창립을 알리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국무위원 식당에서 정오에 열린 총불회 발족식에는 24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초발심의 자세로 불법을 배우고 신행을 펴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이날 회장으로 선임된 전총련 씨는 "한 달간의 준비작업 끝에 총불회를 조직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24명 모두 불자라곤 하지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다른 부처 불자회와 보조를 맞추며 신행의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회원들은 서울 법원사에서 지도법사를 요청하고, 매일 첫째주 화요일 정오에 정기법회를 병행하기로 결의했다.

오종욱 기자



△환경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 500여명은 18일 여의도에서 댐 중심 물정책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환경 해치는 댐건설 반대"

환경단체 500여명 여의도서 시위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과 범영남권담반대투쟁위원회는 18일 '댐 위주 물정책 반대 국민행동'에 나섰다.

두 단체는 이날 오후 1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댐 중심 물정책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오후 1시 국회의입회관에서 댐 위주 물 정책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양 한국교원

대 교수가 '대형댐의 역할과 한계', 이정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물 관리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각계 전문가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전환해 수량확보와 수질관리, 행정체계의 정비까지 포함하는 친환경적인 종합 물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교정인련 포교사팀 발족

재소자 교리교육등 활동

전국불자교정인련협회가 자체적인 포교사 팀을 발족했다.

포교사 팀은 연합회 회원으로 포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22명의 회원으로 주축으로 구성돼,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통도사에서 갖은 연합회 간부수련회에서 공개됐다. 이는 6월 초 연합회 임원 간담회에서 회원 중에서 포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는 논의가 모여 가시화 됐다.

이에 따라 교도위원이 상주하지 못한 교정기관에서도 포교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연합회 산하 지회를 창립하지 못한 교정기관에서 연합회 입지를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교정인 포교사의 수가 해마다 5-6명 가량 늘어나고 있어, 이번 발족한 포교사 팀의 조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교사 팀장을 맡은 유화영 씨는 "매일 모임을 여는 것을 물론 각 교정기관의 불교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교정인 포교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직접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조계종 포교원이 19-20일 개최한 '의식집전 교육'에서 목탁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직장직능 불자회 임원들.

"법회진행 이젠 자신 있어요"

조계종 직장단체 임원 첫 의식집전 교육

45명 참가...예불·독경·목탁치는 법 배워

"염불은 호흡이고 목탁은 장단입니다. 예불 의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19일 오후 8시 포교원 4층 법당을 가득 채운 45명의 불자들은 목탁을 두드리며 삼귀의와 정근 방법을 시연하는 주경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에게 온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 시간은 일터에서 동료 불자들과 예불 의식을 진행하며 품었던 궁금증을 일거에 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국립의료원, 농림부, 성북구청, 경찰청 등 30여 곳의 일터에서 불자회를 이끌고 있는 45명의 불자들은 19-20일 이틀간 열린 포교원의 제1회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임원 의식집전 교육'에 참석해 목탁을 치는 법, 염송이나 독경 정근을 하는 법, 예불을 올리며 법회를 병행하는 법 등 일터에서 신행 활동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의식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불자들은 교육에 앞서 배부된 <불교의식의 이해와 바람직한 집전방법>라는 제목의 포교 지침서를 참조하며, 때론 스님의 말과 행동을 메모하며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며 의식을 차근차근 배워 갔다.

농림부 불자회 총무 이영기 씨는 "불자회 대부분 지도법사가 없어, 임원들이 서툰 솜씨로 불교의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번 힘들

게 진행했던 불자회 법회를 이제는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에서 전철을 타고 온 이 씨의 집은 경기도 안양이다.

종단 차원에서 직장직능불자회에 실시된 첫 의식집전 교육은, 조계종 포교원이 직장직능 불자회 임원들에게 법회 진행상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불자회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법회 병행을 위해 2개월 간의 준비 과정 끝에 마련됐다.

덕혜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은 "지도법사나 스님이 없어도, 불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향후 서울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교육법위

단을 구성해 직장직능 단체와 연계시킬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격무 시달리는 경찰관 마음 여유 찾았으면..."

법당개원 부산경찰청 고형섭 회장

"부산지방경찰청의 무궁화 법당을 기점으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불자를 위한 포교 공간이 생겨나고 법회가 활성화 되도록 일심으로 정진할 계획입니다."

8월 4일 부산지방경찰청 청사 내에 무궁화법당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경범죄 고형섭(51, 폭력계 경위·사진) 회장은, 8월 4일 현판식을 갖고 개인하게 되는 무궁화 법당이 경찰청 직원들의 신행과 정진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98년 창립이후 매주 목요일 법회로 신심을 다지고 있는 경찰회 회원들의 정성과 경승단 스님들의 지원으로 문을 열게 된 무궁화 법당은 앞으로 경찰서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 개방될 예정이다.

고 회장은 "경승단 스님들을 주축으로 스님이 상주하면서 불자들을 위한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우리 모임에선

안산승무소 참선실수

철도청 안산승무사무소는 18일 오전 12시 30분 다보사에서 7월 정기법회를 병행했다. 20여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다보사 주지 도선 스님의 보현행현품을 주제로 한 법문과 강좌, 반야심경 봉독, 참선실수로 진행됐다.

한빛은 지도법사 법현스님

한빛은행 불자회는 12일 오후 7시 30분 본점 4층 강당에서 지도법사로 법현스님(종단협 사무국장)을 추대했다.

회원들의 앞차고 내실있는 마음 공부를 위하여 마련된 추대 법회에는 법사 법현스님을 비롯해 30여 명의 한빛 불자회원들이 참석했다.

경희의료원 정기법회

경희의료원 불자회는 24일 서울 회기동 연화사에서 7월 정기법회를 병행했다. 20여 회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찬불가로 시작한 이날 법회에서 연화사 주지 묘정 스님은 '육체의 치료와 마음의 치료'를 주제로 법문했다. 경희의료원 불자회 8월 정기법회는 21일 저녁 6시 연화사에서 열린다.

법륜불자교수회 수련회

법륜불자교수회는 7월 21-22일 영주 부석사에서 제27차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50여 회원과 그 가족들은 21일 오후 1시 30분 입재식을 시작으로 '불교와 풍수지리'를 주제로 한 경산대 성동훈 교수의 특강, 부석사 주지 근일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경찰불교회 활성화 논의

전국경찰불교회는 7일 서울경기 지역 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정례모임을 운영하는 문제와 지도법사나 법당이 없는 경찰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경찰불교회 두 번째 모임은 8월 25일 오후 3시 본청에서 열린다.

게시판

알림

▲3세대 통합 여름캠프=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2-3일 가평 '약속의 섬'에서 '해뜨는 집-3세대 통합 여름 캠프'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가족단위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노인 및 청소년, 아동,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02)358-1351

▲진로 지도=양정청소년수련관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02년 2월까지 진행되는 진로지도는 진도조사(4회), 진로탐색(8회), 적성검사(3종류), 직업준비특강(3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051)868-0750

강좌

▲아동어른특강=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 단기특강을 마련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들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에는 창작미술, 동화구연, 아동생활체조, 인터넷 활동 등이 강의된다. (02)817-8052

모집

▲피아노 강사=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피아노 강사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음악학과 관련 전공자로, 아동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한다. 교육 시간은 월·금요일 오후 5시. (02)571-2988

▲불교합창단원=군산불교신도연합회는 음성공양으로 포교활동에 매진할 불교합창단원 약간명을 모집한다. 연습시간은 주 1회. (011)9642-7733

▲생활재활교사=승가원은 소책자마을 생활재활교사를 모집한다. 5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녀면 지원 가능하며, 시설 상주 근무. (033)762-9870

▲합창단 신입단원=수원 어울문화원은 어울우리노래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모집의 오디션은 28일 문화원에서 개최되며, 자유곡 1곡과 면접으로 진행된다. (031)256-6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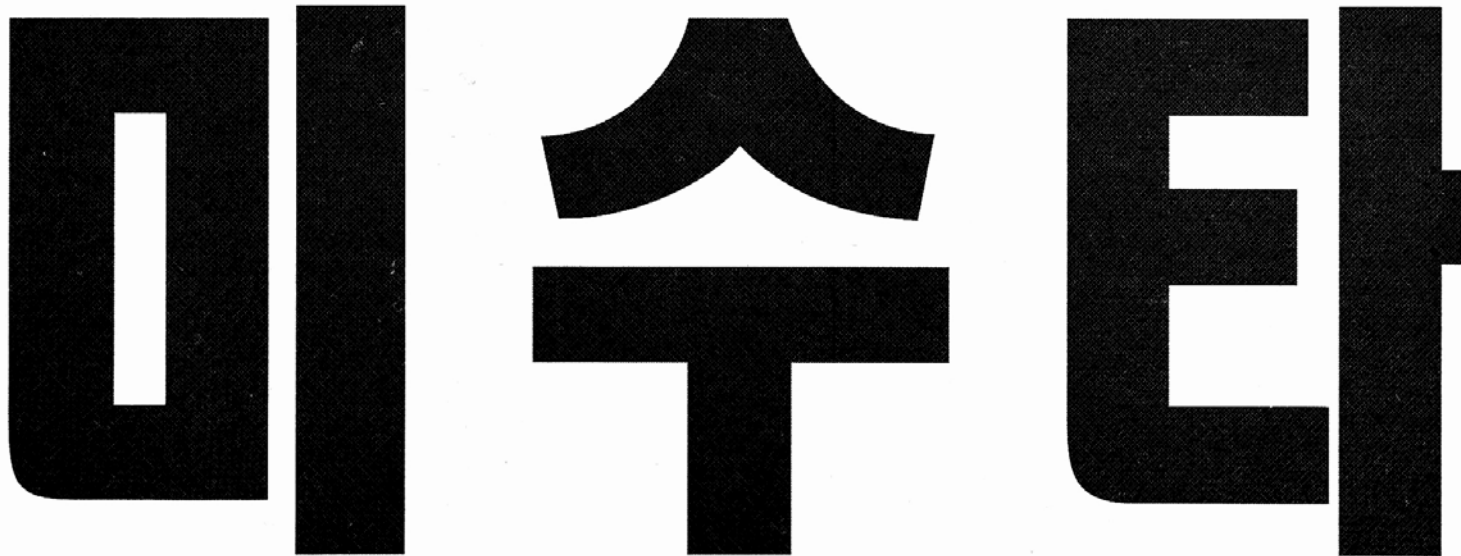
▲장애인 도우미=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가정봉사자 및 차량지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가정봉사원은 주 1회 2시간 장애인 간병 및 가사를 돕고, 차량지원봉사자는 월 2회 3시간 말반찬 배달 및 병원 동행 봉사를 한다. (054)633-6415

▲아동 방학과제 도우미=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아동 방학과제를 도울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 내용은 방학과제, 수영장이용, 음식만들기, 공동작품만들기, 발표 등이며, 기간은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02)989-4215

인터넷 향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nia.com

- 전화상담: 매주 월-금 (02) 596-7231
-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02) 596-4162

상표등록



반도체 안전 전자
반도체 전자 인증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 1. 전남 1. 서울, 경기 2. 충북 1. 충남 1
- ◆본 미슈타 반도체 안전 전자 인증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 경북, 북부대리점
영주 054-635-9153
-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